

2018 하반기 소방직 국어 출제경향 및 분석

장원급제 소방국어 양경모 교수

01 개요

소방직 시험에서 처음으로 문제가 공개되었습니다. 그 동안 수험자들의 기억에 의존해 문제를 복원하다 보니 완벽한 복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미흡한 점이 많았고, 문학이나 비문학 영역처럼 긴 지문이 출제되었을 때는 복원 지문과 문제가 맞지 않아 곤란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올 하반기 시험부터 기출문제가 공개되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없어졌더라도 시험에 대한 부담까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2018년 상반기와 이번 공개된 하반기 문제를 중심으로 문제에 대한 변화를 간략하게나마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02 2018 소방국어 출제 영역 비교

(1) 표 1 : 2018 상반기

영역	분야	문항	출제 내용
규범문법(6)	음운론	3	자음 체계 음운 변동 표준발음법
	형태론	2	형태소 분석 품사의 구별
	문장론	1	문장의 짜임 : 안은문장
어문규정(1)	한글맞춤법	1	유음이의어의 구별
현대문학(4)	문학일반	1	문학의 갈래
	현대시	2	천상병, 〈귀천〉 : 시적 화자의 태도 기형도, 〈홀린 사람〉 : 내용의 이해
	현대소설	1	김유정, 〈봄봄〉 : 표현 이해하기
고전문법(1)	훈민정음	1	자모의 운용: 연서법
고전문학(5)	향가	1	월명사, 〈제망매가〉 : 작품의 이해
	고시조	1	계량, 〈梨花雨(이화우) 훗썩릴 제〉 : 함축적 의미

	고전수필	2	권근, 〈주옹설〉 -서술방식의 이해 -동일한 주제 찾기: '삶의 태도'
	판소리	1	〈춘향가〉: 어사출도 삽입 한시
비문학(3)	독해	2	내용의 일치(2)
	작문	1	조건의 일치

(2) 표 2 : 2018 하반기

영역	분야	문항	출제 내용
규범문법(8)	언어와 국어	3	언어의 특성 : 사회성 순우리말 : 거미 고유어와 한자어의 대응 : '느낌'
	음운론	1	음운 축약 : 모음 축약과 탈락 구별
	형태론	2	형태소 분석 품사의 구별 : 관형사와 부사의 식별
	문장론	2	높임 표현 문장의 짜임 : 대등 이어진 문장
어문규정(2)	한글맞춤법	1	띄어쓰기
	외래어 표기	1	재즈
현대문학(3)	현대시	3	박목월, '산이 날 에워싸고' : 작품의 이해 김영랑, '오월' : 표현상 특징 이육사, '절정' : 역설적 표현
고전문학(2)	고시조	1	성삼문, 박팽년의 시조
	판소리	1	신재효의 여섯 마당
비문학(3)	독해	2	상황의 추리 내용의 일치
	작문	1	전개방식 : 분류
한자(2)	한시	1	정지상, '송인' : 형식(7언 절구)
	사자성어	1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성어 : 마부위침

03 영역별 분석

(1) 문법 영역 (10)

- (1) 기존 공무원 시험 9급 문제(국가직, 지방직, 경찰직 등)에 비해 난이도는 다소 떨어졌지만, 유형은 대부분 일치했다. 특히 경찰직 문제 유형에 거의 가까웠다.
- (2) 기존 소방직 시험에서 나오지 않았던 ‘고유어와 한자어의 어원 비교’나 ‘고유어와 한자어의 대응’ 문제가 출제되어 기초 지식분야가 확대되었다.
- (3) 규범문법(학교문법) 분야가 영역별로 다양하게 제시되어 어문 규정보다 강조되었다.
- (4) 어문규정 분야에서 ‘띄어쓰기’와 ‘외래어 표기’가 처음 출제되었다.
- (5) 고전문법 부분은 출제되지 않았다.

(2) 문학 영역 (5)

- (1) ‘현대시’만 출제되었다.
- (2) ‘고전문학’의 비중이 다소 줄어들었다.
- (3) 주로 ‘산문’보다는 ‘운문’ 영역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3) 비문학 영역 (3)

- (1) 상반기와 문항수 및 유형이 일치하였다.
- (2) 빈출되는 유형을 중심으로 반복되는 경향을 보였다.

(4) 한자 영역

- (1) 한자성어가 3년 만에 다시 출제가 되었다.
- (2) ‘한시’는 기존에는 ‘표현기법’이나 ‘내용의 이해’였으나 ‘형식’을 묻는 문제가 처음 제시되었다.

04 제언

문제가 처음 공개된다고 해서 기존 문제와 난이도나 유형이 어떻게 변할까 관심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저런 예상들이 수험자들과 교수들 입장에서도 달랐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시험이기 때문에 기존 유형과 같았습니다. 아니, 기존 공무원 시험에서 자주 출제된 유형들이 소방직 시험에서는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앞으로는 거의 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난이도가 이번에는 다소 낮았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무조건 쉽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직종보다는 기본 개념과 유형을 많이 다루지만 오히려 이런 유형이 더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소방 국어’ 시험은 이제부터 다양한 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금부터 수험자들은 자신감을 가지시고 내년 시험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늦는 만큼 인생도 늦어집니다.

2018 소방직 하반기 국어 기출문제 5

02 다음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이 몸이 주저 가서 무어시 될꼬 하니,
봉래산(蓬萊山) 제일봉(第一峯)에 낙락장송(落落長松) 되야 이서,
백설(白雪)이 만건곤(滿乾坤)흐 제 독야청청(獨也靑靑)히리라.

— 성삼문의 시조

(나)

가마귀 눈비 마즈 희눈 듯 검노미라.
야광명월(夜光明月)이 밤인들 어두오랴.
님 향(向)흐 일편단심(一片丹心)이야 고칠 줄이 이시랴.

— 박팽년의 시조

- ① (가)의 ‘백설’과 (나)의 ‘눈비’는 혼란스러운 시대 현실을 의미한다.
- ② (가)의 ‘독야청청’과 (나)의 ‘일편단심’은 삶의 태도 면에서 유사하다.
- ③ (가)의 ‘낙락장송’과 (나)의 ‘야광명월’은 화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이다.
- ④ (가)의 ‘이 몸’과 (나)의 ‘님’은 화자가 변치 않는 절개를 다짐하고 있는 대상이다.

정답 ④

해설 (1) 출제 영역 : 고전문학-고시조

(2) 정답 풀이

(가)와 (나)는 계유정란(=세조정변)을 배경으로 한 사육신의 시조이다.

(가)는 온 세상이 다 세조를 섬기는 세상이 되더라도 자신만은 남산 위에 우뚝 솟은 소나무처럼 단종에 대한 절개를 지키겠다는 심정을 토로한 작품이며, (나)는 단종의 복위를 꾀하려다가 실패하고 옥중에 갇혀 있을 때, 김질이 세조의 명을 받고 찾아가 술을 권하며 이방원의 하여가로 회유하려 하자, 그 대답으로 지은 작품으로 온갖 주위의 유혹에도 굽히지 않는 작가의 지조를 드러내고 있다.

④ 화자가 변치 않는 절개를 다짐하고 있는 대상은 (나)의 ‘님(=단종)’이다. (가)의 ‘이 몸’은 작가 자신으로 자신의 절의를 다짐하고 있을 뿐 절개를 다짐하고 있는 대상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3) 오답 피하기

① (가)의 ‘백설’과 (나)의 ‘눈비’는 세조가 왕권을 장악한 혼란스러운 시대 현실을 의미한다.

② (가)의 ‘독야청청’은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홀로라도 지조를 지키겠다는 굳은 결의를, (나)의 ‘일편단심’은 임에 대한 변함없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삶의 태도면(변하지 않는 절개)에서 유사하다.

③ (가)의 ‘낙락장송’은 ‘굳은 절개’를, (나)의 ‘야광명월’은 ‘절개 높은 신하’를 상징하는 말로 화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되고 싶은 대상이다.

The 보기

(가) 성삼문의 시조

- (1) 시대 : 계유정란
- (2) 종류 : 평시조
- (3) 내용 : 절의가, 충의가
- (4) 성격 : 의지적, 지사적, 비판적
- (5) 제재 : 낙락장송
- (6) 주제 : 곳곳한 또는 굳은 절개

(나) 박팽년의 시조

- (1) 시대 : 계유정란
- (2) 종류 : 평시조
- (3) 내용 : 절의가, 충의가
- (4) 성격 : 의지적, 비판적, 풍자적
- (5) 제재 : 야광명월
- (6) 주제 : 일편단심(一片丹心), 변하지 않는 절개

03 다음 ㉠~㉢ 중 순우리말인 것은?

유럽을 여행할 때면 ㉠국경을 넘는 일이 자연스럽게 다가온다. ㉡거미줄처럼 유럽 주요 ㉢도시를 이어 주는 국제선 열차를 타고 있으면 수많은 여행자와 함께 하루에도 몇 번씩 국경을 넘나들게 된다. 대부분 국경이 있는지도 모르고 ㉣순식간에 넘는다. 휴대전화의 통신사가 바뀌면서 다른 국가로 들어왔다는 문자가 뱅동 울리고서야 국경을 넘은 사실을 알아차릴 정도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②**해설** (1) 출제 영역 : 규범문법-언어와 국어 : 어원

(2) 정답 풀이

어원을 파악할 때 음으로 읽힐 수 있는 것은 ‘한자어’이고 뜻으로 읽히는 것은 순우리말이다.

② ‘거미’는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순우리말이다. ‘거미’에 해당하는 한자어는 ‘蛛(주)’이다.

(3) 오답 피하기

- ① 국경(國 나라 국, 境 지경 경)
- ③ 도시(都 도읍 도, 市 저자 시)
- ④ 순식간(瞬 눈깜박일 순, 息 숨쉴 식, 間 사이 간)

04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산이 날 에워싸고
씨나 뿌리며 살아라 한다.
밭이나 갈며 살아라 한다.

어느 짧은 산자락에 집을 모아
아들 낳고 딸을 낳고
흙담 안팎에 호박 심고
들짚레처럼 살아라 한다.
쭉대밭처럼 살아라 한다.

산이 날 에워싸고
그믐달처럼 사위어지는 목숨
그믐달처럼 살아라 한다.
그믐달처럼 살아라 한다.

- 박목월, 「산이 날 에워싸고」

- ① 화자는 순수하고도 탈속적인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
- ②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화자는 자신의 소망을 '산'이 자신에게 말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 ④ 화자는 절제된 감정으로 '산'과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

정답 ④

해설 (1) 출제 영역 : 현대문학-현대시 : 작품의 이해

(2) 정답 풀이

일제 치하의 암울한 현실 상황 속에서 목월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연뿐이었다. 그 곳은 단순히 자연으로의 귀의라는 동양적 자연관으로서의 자연이라기보다는 인간다운 삶을 빼앗긴 그에게 '새로운 고향'의 의미를 갖는 자연이다. 그러므로 목월에 의해 형상화된 자연의 모습은 인간과 자연의 대상들이 아무런 대립이나 갈등 없이 조화를 이루는 자연이다.

- ④ 감정의 절제는 맞는 지적이나 화자는 '산(=자연)'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삶을 동경하고 있다.

(3) 오답 피하기

- ① 화자는 순수하고도 탈속적인 세계인 '산(=자연)'을 지향하며, 자연 속에 안겨 평범하면서도 풍요로운 삶, 즉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은 순수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 ② '산이 날 에워싸고(A)', '~살아라 한다(B)'의 통사구조의 반복을 통해 '자연 친화를 통한 초월적 삶'이라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살아라 한다'의 명령 화법으로 되어 있지만 이는 '산(=자연)'이 화자에게 권유하는 것이며 또한 시적 화자의 소망이다.

The 보기

1. 갈래 : 자유시, 서정시
2. 성격 : 초월적, 자연친화적, 관조적
3. 특징
 - ① '산'을 의인화하여 화자에게 말을 하는 것처럼 표현함.
 - ② '산이 날 에워싸고 ~ 살아라 한다.'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주제를 강조함.
 - ③ 자연과의 동화가 점층적으로 진행됨.
4. 구성 : 점층적('생계 → 생활감 → 정신의 달관'으로 점차 고양되어 가는 단계)
 - ① 제1연 : 자연 속의 삶
- '씨나 뿌리고', '밭이나 갈고' 사는 최소한의 생계 수단
 - ② 제2연 : 자연 속의 야성적인 삶
- '들짚레처럼', '쑥대밭처럼' 사는 생활상
 - ③ 제3연 : 자연 속의 생명
- '구름처럼', '바람처럼' 사는 달관의 경지
5. 제재 : 산에 에워싸인 배경
6. 주제
 - ① 평화롭고 순수한 자연에 대한 동경
 - ② 자연 친화를 통한 초월적 삶

05 다음 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국가 지정 문화재는 국보, 보물, 사적, 명승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국보는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이고, 보물은 건조물·전적·서적·회화·공예품 등의 유형 문화재 중 중요한 것이다. 사적은 기념물 중 유적·신앙·정치·국방·산업 등으로서 중요한 것이고, 명승은 기념물 중 경승지로서 중요한 것이다. 이외에도 천연기념물, 중요 무형 문화재, 중요 민속 문화재도 국가 지정 문화재에 속한다.

- | | |
|------|------|
| ① 분류 | ② 서사 |
| ③ 대조 | ④ 인과 |

정답 ①

해설 (1) 출제 영역 : 비문학-작문 : 글의 전개방식

(2) 정답 풀이

- ① 첫 문장 '국가 지정 문화재는 국보, 보물, 사적, 명승 등으로 나눌 수 있다.'에서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상위개념(국가 지정 문화재)' 속에 포함되는 '하위개념(국보, 보물, 사적, 명승 등)'을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전개방식을 '구분'이라 하는데 주의할 점은 '구분'의 보기가 없을 때는 '분류'가 '구분'을 포함하는 개념임을 숙지해야 한다.

(3) 오답 피하기

- ② 서사 : 시간의 흐름에 위치하는 일련의 행동이나 사건에 대하여, '무엇'에 관심을 가지며 주로 이야기를 통하여 전달한다.
- ③ 대조 : 동일 범주에 속하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물에 대하여 그들이 지니고 있는 차이점을 밝혀내는 지적 작용이다.
- ④ 인과 : 시간의 흐름에 위치하는 일련의 행동이나 사건에 대하여, '왜'에 관심을 가지는 전개방식이다.

06 외래어 표기가 옳은 것은?

- ① cafe - 카페
- ② vision - 비전
- ③ jazz - 재즈
- ④ supermarket - 슈퍼마켓

정답 ③

해설 (1) 출제 영역 : 어문규정-외래어 표기법

(2) 정답 풀이

- ③ 재즈(X) : 된소리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음이 원칙이다.

(3) 오답 피하기

- ① 카페>카페 : 된소리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음이 원칙이다.
- ② 비전>비전 : 국어의 관용을 존중하여 초성 'ㅈ, ㅊ' 아래의 이중모음 'ㅊ, ㅊ, ㅊ, ㅊ'는 주로 단모음 'ㅈ, ㅊ, ㅊ, ㅊ'로 표기한다.
- ④ 슈퍼마켓>슈퍼마켓 : 'super'는 미국식 발음인 '슈퍼'를 따르지 않고 영국식 발음인 '슈퍼'로 적는다.

07 높임법의 쓰임이 적절한 것은?

- ① 고객님의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 ② 할아버지께서 네 방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 ③ 지금부터 사장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 ④ 어머니께서 제게 시간을 여쭙어 보셨습니다.

정답 ②

해설 (1) 출제 영역 : 규범문법-문장론 : 높임 표현

(2) 정답 풀이

- ② '오다'의 주체는 '너'이고, '하다'의 주체는 '할아버지'이므로 주체높임 선어말어미 '-사-'는 '하다'에 넣어야 한다. '오다'에 '-사-'를 넣으면 '너'를 높이는 경우가 되므로 틀린 표현이 된다.

정답 ①

해설 (1) 출제 영역 : 고전문학-판소리

(2) 정답 풀이

① '만분가'는 조위가 '무오사화[1498년(연산군 4년)]' 때 전남 순천으로 유배 가서 지은 우리나라 최초의 유배가사이다.

(3) 오답 피하기

- 신재효의 판소리 6마당 : 〈춘향가〉, 〈심청가〉, 〈수궁가〉, 〈흥부가〉, 〈적벽가〉, 〈변강쇠 타령〉

10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인 것은?

- 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 ②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 ③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 ④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정답 ④

해설 (1) 출제 영역 : 규범문법-문장론 : 문장의 짜임

(2) 정답 풀이

④ 대등이어진 문장 : '∼고'는 대등적 연결어미. '밤말은 쥐가 듣고 낮말은 새가 듣는다.'처럼 문장의 순서를 바꾸어도 가능하다.

(3) 오답 피하기

①∼③은 모두 종속이어진 문장이다.

① -자- : 동사나 일부 형용사의 어간 뒤에 붙어,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이루어진 후 그것이 원인이 되어 다른 사실이 발생함을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어미.

② -면- : 일반적으로 분명한 사실을 어떤 일에 대한 조건으로 말할 때 쓰는 종속적 연결어미.

③ -아야- : 앞 절의 일이 뒤 절 일의 조건임을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어미.

11 다음 한시의 형식적 갈래로 적절한 것은?

雨歇長堤草色多 비 갠 긴 독옌 풀빛이 짙어 가는데
送君南浦動悲歌 남포에서 임 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네.
大同江水何時盡 대동강 물은 어느 때 마르려는지
別淚年年添綠波 해마다 이별 눈물 푸른 강물에 더해지네.

- 정지상, 「송인(送人)」

- ① 5언 절구
- ② 5언 율시
- ③ 7언 절구
- ④ 7언 율시

정답 ③

해설 (1) 출제 영역 : 한자-한시 : 형식

(2) 정답 풀이

③ 7언 절구 : 한 구의 글자 수가 7자이며 4구(기승전결)로 이루어진 한시.

(3) 오답 피하기

① 5언 절구 : 한 구의 글자 수가 5자이며 4구(기승전결)로 이루어진 한시.

② 5언 율시 : 한 구의 글자 수가 5자이며 8구(수합경미)로 이루어진 한시.

④ 7언 율시 : 한 구의 글자 수가 7자이며 8구(수합경미)로 이루어진 한시.

12 다음 상황에 어울리는 사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수진이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책 한 권의 내용을 다 공부해야 한다며 공부 계획을 짜서 보여주었다. 하지만 정훈이는 그 책의 두께를 보는 순간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여섯 달이 지난 후 시험에 합격한 수진이는 자신도 처음엔 책 두께를 보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계획을 세우고 매일매일 빼먹지 않고 공부한 결과 그 내용을 다 공부할 수 있었다고 했다.

① 마부위침(磨斧爲針)

② 설상가상(雪上加霜)

③ 어부지리(漁夫之利)

④ 상전벽해(桑田碧海)

정답 ①

해설 (1) 출제 영역 : 한자-한자성어

(2) 정답 풀이

제시문의 요지는 아무리 힘든 일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① 마부위침 :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음을 이르는 말.

(3) 오답 피하기

② 설상가상 : 눈이 내리는 위에 서리까지 더한다는 뜻으로, 어려운 일이나 불행이 겹쳐서 일어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③ 어부지리 : 황새와 조개가 다투는 틈을 타서 어부가 둘 다 잡았다는 고사에서, 두 사람이 다투고 있는 사이에 이 일과 아무 관계도 없는 제삼자가 이익을 보게 됨을 이르는 말

④ 상전벽해 : 뽕나무밭이 변하여 푸른 바다가 된다는 뜻으로, 세상일의 변천이 심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3 '음운의 축약'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되 + 어 → 돼
- ② 두 + 었다 → 뒀다
- ③ 가 + 아서 → 가서
- ④ 쓰 + 이어 → 씌어

정답 ③

해설 (1) 출제 영역 : 규범문법-음운론 : 음운현상

(2) 정답 풀이

③ 음운 탈락 : 동음 탈락(생략). 어간 모음 'ㅏ'와 어미 모음 'ㅏ'가 동일할 때 어미를 탈락한다.

(3) 오답 피하기

① 모음 축약(준말) : 어간 모음 'ㅛ'가 모음 어미 '어'나 '었'이 어울려 줄어질 때는 '내/됐'으로 적는다.

② 모음 축약 : 어간 모음 'ㅜ'와 모음 어미 'ㅜ'가 축약되어 'ㄹ'이 된다.

④ 모음 축약 : 어간 모음 'ㅡ'와 모음의 접미사 'ㅣ'가 축약되어 'ㄴ'이 된다. "쓰+이어"를 준말로 적을 때에는 '씩어'나 '쓰여' 둘 다 가능하다. 다만 '씩여'는 틀린 표기.

14 다음 문장을 형태소 단위로 나눌 때, 적절한 것은?

하늘이 맑고 푸르다.

- ① 하늘이 / 맑고 / 푸르다
- ② 하늘 / 이 / 맑고 / 푸르다
- ③ 하늘 / 이 / 맑고 / 푸르 / 다
- ④ 하늘 / 이 / 맑 / 고 / 푸르 / 다

정답 ④

해설 (1) 출제 영역 : 규범문법-형태론 : 형태소 분석

(2) 정답 풀이

형태소는 뜻을 지닌 가장 작은 말의 단위다. 형태소를 분석할 때 단어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조사는 하나의 형태소가 하나의 단어이지만 용언은 형태소를 나눌 때에는 '어간'과 '어미'로 나누지만 단어는 전체를 묶어야 한다.

(가) 하늘이 : 체언과 조사는 나눈다. 하늘/이

(나) 맑고 : 어간과 어미는 나눈다. 맑/고

(다) 푸르다 : 어간과 어미는 나눈다. 푸르/다

15 <자료>를 바탕으로 <보기>의 문장을 작성하였다. <보기>의 문장 중 띄어쓰기가 옳은 것끼리 묶인 것은?

<자료>

[한글 맞춤법]

- 제2항 -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 제41항 -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 제42항 -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 제43항 -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보기>

- ㄱ. 당신이 문득 나를 알아볼 때까지.
- ㄴ. 한국인 만큼 부지런한 민족이 있을까?
- ㄷ. 돈을 많이 모아서 멋진 집 한 채를 샀다.
- ㄹ. 무궁화는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꽃 입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②

해설 (1) 출제 영역 : 어문규정-한글맞춤법 : 띄어쓰기

(2) 정답 풀이

- ㄱ. 당신이 문득 나를 알아볼 때까지 : 의존명사 '때'는 앞말(관형어) '알아볼'과 띄어 써야 하며, 조사 '까지'는 앞말과 붙여 써야 한다.
- ㄷ. 돈을 많이 모아서 멋진 집 한 채를 샀다. : 단위성 의존명사 '채'는 수관형사 '한'과 띄어 써야 한다.

(3) 오답 피하기

- ㄴ. 한국인만큼 부지런한 민족이 있을까? : 관형어 다음의 '만큼'은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하지만, 체언 다음의 '만큼'은 조사이므로 붙여 쓴다.
- ㄹ. 무궁화는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꽃입니다. : 체언 다음의 '입니다'는 서술격 조사이므로 반드시 붙여 써야 한다.

 [16 ~ 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런 통계 수치 본 적 있지? 현재 지구촌의 65억 인류 중 약 1/4이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고 있고, 그 중 70%가 여성과 아이들일래. 또 약 20억 명의 전 세계 어린이 가운데 1억 2천만 명의 어린이가 학교에 가지 못하며, 비슷한 수의 어린이들이 거의 노예 노동을 하고 있어. 또한 매일 3만 명의 어린이들이 굶어 죽어 가고 있지.

그런데 이상한 점은 후진국 사람들이 게으르거나 나쁜 사람들이어서 평생 빈곤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도 해가 갈수록 나아지기는커녕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깊어지지. 왜 그럴까?

그것은 대부분의 제3 세계 나라들이 선진국의 식민지였거나 독립 이후 자유 무역에서도 여전히 종속적 위치여서 진정한 자치와 자율을 실현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지. 또 그런 구조 속에 이뤄진 경제 발전조차 내실 없이 외형만 커졌던 탓이기도 하고. 그 결과 오늘날 선진국은 1인당 GDP가 3~4만 달러이고, 한국은 2만 달러 수준이지만, 제3 세계 나라들은 아직도 100~200달러 수준이 많아.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선진국의 양심적 사람들 사이에서 나온 것이 공정 무역 운동이야. 한마디로 선진국 사람들이 누리는 풍요가 후진국 사람들의 희생에 기초하고 있다는 반성, 그래서 선진국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후진국 사람들이 빈곤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도와야 한다는 성찰이 공정 무역을 탄생시킨 것이지.

공정 무역은 1950년대 말 영국의 국제 구호 단체 ‘옥스팜’에서 중국 난민들이 만든 수공예품을 판매하면서 시작되었고, 1980년대 후반에는 ‘옥스팜’과 ‘텐 사우전드 빌리지’ 같은 시민 단체들이 제3 세계의 정치적 민주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 운동에 뛰어들면서 그 흐름이 대중화되었어. 특히 1989년, 전 세계 270개 공정 무역 단체가 가입한 국제 공정 무역 협회의 출범 이후 지금은 세계적으로 그 운동이 활발하지. <중략>

한 통계에 따르면, 2006년 전 세계 공정 무역 제품 판매는 16억 유로(약 2조 1,500억 원)어치로, 2005년에 비해 42% 늘었대. 공정 무역 인증제품만 2,000여 개 품목이 유통되고, 700만 명 이상의 생산자들이 혜택을 보고 있어.

스위스에서는 판매되는 바나나 중 47%가 공정 무역으로 들어온 것이고, 영국에서는 공정 무역 원두커피의 점유율이 20%나 된다고 해. 독일에서는 노동계, 환경 단체, 기업이 위원회를 구성해 공정 무역을 인증하는 제도가 있어. 이 제도를 통해 농산물이 유기 농법으로 생산되도록, 또 농산물이 제값에 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잘 감시하지.

이렇게 윤리적 소비 운동이 활발한 유럽에서는 공정 무역이 50여 년의 오랜 역사를 지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공정 무역이 아직 생소한 개념이야.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와 공정 무역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어.

2004년에 우리나라의 한 소비자 단체에서 필리핀 네그로스 섬의 마스코바도 설탕을 팔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 점점 관심이 늘어나 몇몇 시민 단체에서도 커피, 의류 등의 공정 무역 제품을 내놓고 있지. ‘착한 커피’나 ‘아름다운 커피’ 같은 것도 이런 운동에서 나온 거야.

2007년에는 한 은행의 노동조합과 소비자 단체가 연대하여 ‘윤리적 소비’ 실천을 위한 물품 공급 협약식을 맺었어. 이 협약은 노동조합이 윤리적 소비 실천을 통해 친환경 유기농 운동을 펴는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과 식품, 그리고 제3 세계의 농민 공동체에서 생산해 공정 무역으로 수입되는 제품을 소비하겠다고 다짐한 첫 사례라 큰 의미가 있다고 봐. 최근 강조되는 ‘1사 1촌 운동’을 통한 농촌 살리기가 공정 무역을 매개로 국경을 넘어 세계화할 수 있는 좋은 사례지.

16 윗글을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 할 때, 그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정 무역의 뜻은 무엇일까?
- ② 공정 무역의 문제나 한계는 없을까?
- ③ 공정 무역을 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좋을까?
- ④ 공정 무역은 언제 시작하였으며 현재의 실태는 어떠할까?

정답 ④

해설 (1) 출제 영역 : 비문학-독해 : 상황의 추리

(2) 정답 풀이 : ④ 1~3단락은 4단락의 '공정 무역'이 시작되게 되었던 배경이고, 5단락은 '공정 무역'이 시작된 시기를, 6~7단락은 '공정 무역'의 외국의 실태를, 8~10단락은 우리나라의 실태를 제시하고 있다. 질문은 위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하므로 '④ 공정 무역은 언제 시작하였으며 현재의 실태는 어떠할까?'가 적합하다.

(3) 오답 피하기

- ① '공정 무역의 뜻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에 대한 내용은 본문에 없다.
- ② '공정 무역의 문제나 한계는 없을까?'라는 질문은 공정무역의 문제나 한계가 본문에 제시되어야 하는데 이 내용이 없으므로 질문으로 어울리지 않는다.
- ③ '공정 무역을 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좋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본문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8~10단락에 우리나라의 실태와 의의에 대해서만 제시하고 있으므로 공정 무역이 우리에게 주는 이익이나 효과는 질문으로 부적합하다.

17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공정 무역은 선진국의 대기업에서 시작되었다.
- ② 후진국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아지고 있다.
- ③ 우리나라에서는 공정 무역이 50여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 ④ '착한 커피'나 '아름다운 커피'도 공정 무역 운동의 하나이다.

정답 ④

해설 (1) 출제 영역 : 비문학-독해 : 내용의 일치

(2) 정답 풀이 : ④ 9단락 : "2004년에 우리나라의 한 소비자 단체에서~'착한 커피'나 '아름다운 커피' 같은 것도 이런 운동에서 나온 거야."의 내용으로 미루어 ④는 본문의 내용과 일치한다.

(3) 오답 피하기

- ① 4~5단락 : 4단락에서 '공정 무역'이 선진국에서 시작되었다는 부분은 맞지만, 5단락 "공정 무역은 1950년대 말 영국의 국제 구호 단체 '옥스팜'에서 중국 난민들이 만든 수공예품을 판매하면서 시작되었고~"의 내용으로 미루어 '대기업'에서 시작되었다는 부분은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② 2단락 : "해가 갈수록 나아지기는커녕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깊어지지" 내용으로 보아 반대로 제시되어 있다.

- ③ 8단락 : “유럽에서는 공정 무역이 50여 년의 오랜 역사를 지녔지만~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와 공정 무역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의 내용으로 보아 유럽과 우리나라를 혼동하고 있다.

18 밑줄 친 고유어 ‘느낌’에 대한 유의어를 한자어로 바꾸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도 잘 알지, 그 느낌이 어떤 건지. → 기분(氣分)
- ② 그 책에 대한 느낌은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어. → 소감(所感)
- ③ 전학 가는 보람이를 배웅하는데 서운한 느낌이 들었다. → 감정(感情)
- ④ 어딘지 모르게 그들의 행동에서 미심쩍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 감회(感懷)

정답 ④

해설 (1) 출제 영역 : 규범문법-언어와 국어 : 고유어와 한자어의 대응

(2) 정답 풀이 : 고유어와 한자어의 대응은 ‘:多(다)’의 구조이다.

④ ‘감회(感懷)’는 ‘지난 일을 돌이켜 볼 때 느껴지는 회포’로 ④의 ‘느낌’과는 유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한자어다. ‘대상·환경 따위에 따라 마음에 절로 생기며 한동안 지속되는, 유쾌함이나 불쾌함 따위의 감정’을 뜻하는 한자어 ‘기분(氣分)’과 어울린다.

(3) 오답 피하기

- ① 기분(氣分) : 대상·환경 따위에 따라 마음에 절로 생기며 한동안 지속되는, 유쾌함이나 불쾌함 따위의 감정.
- ② 소감(所感) : 마음에 느낀 바.
- ③ 감정(感情) : 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하여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끼는 기분

19 다음 시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들길은 마을에 들자 붉어지고
 마을 골목은 들로 내려서자 푸르러졌다
 바람은 넘실 천 이랑 만 이랑
 이랑 이랑 햇빛이 갈라지고
 보리도 허리통이 부끄럽게 드러났다
 피꼬리는 여태 혼자 날아 볼 줄 모르나니
 암컷이라 쫓길 뿐
 수놈이라 쫓을 뿐
 황금 빛난 길이 어지럼 뿐
 얇은 단장하고 아양 가득 차 있는
 산봉우리야 오늘 밤 너 어디로 가 버리련

— 김영랑, 「오월」

- ①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②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③ 색채 대비를 통해 풍경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④ 직유를 통해 산봉우리를 친근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정답 ④

해설 (1) 출제 영역 : 현대문학-현대시 : 표현상 특징

(2) 정답 풀이

④ 산봉우리를 여인으로 '의인화'함으로써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으나, 직유의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3) 오답 피하기

- ① '천 이랑 만 이랑, 이랑 이랑, 허리통' 등에 나타난 유음 'ㅇ'의 반복과 '암컷이라 꽃길 뽀/수놈이라 꽃을 뽀/황금 빛난 길이 어지러 뽀'의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② 봄날의 자연 풍경을 화자의 시선의 이동에 따라 묘사하고 있다. 화자의 눈은 '들길'에서부터 '마을, 들, 바람, 햇빛, 보리, 꾀꼬리, 산봉우리'를 향해 이동해 가면서, 이를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이미지를 통해 표현하여 약동하는 봄의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마을로 통하는 황토길은 붉은색으로, 들판으로 이어지는 길은 푸른색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색채 대비는 토속적인 마을 풍경을 선명하게 드러내면서, 아울러 봄날의 생동감을 환기시켜 준다.

The 보기

1. 갈래 : 자유시, 서정시
2. 성격 : 감각적, 낭만적, 묘사적
3. 특징 :
 - ①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 ② 의인법과 색채 대비를 통해 대상을 생동감 있게 표현함.
 - ③ 향토적 소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경쾌한 음악성을 느낄 수 있음.
4. 제재 : 오월의 들과 산봉우리
5. 주제 : 오월에 느끼는 봄의 생동감, 봄날의 생명력

20 다음 시의 ㉠~㉣에서 역설적 표현이 사용된 것은?

㉠매운 계절(季節)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北方)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高原)
㉡서릿발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어데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재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갯가 보다.

- 이육사, 「절정」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④

해설 (1) 출제 영역 : 현대문학-현대시 : 역설적 표현

(2) 정답 풀이 : '역설법'은 표면적으로는 모순되거나 부조리한 것 같지만 그 표면적인 진술 너머에서 진실 드러내고 있는 수사법이다.

④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갯가 보다. : 화자는 강철과도 같은 차갑고 비정한 금속성의 이미지와 무지개의 황홀한 이미지를 결합시켜 비극적이면서도 황홀한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극한적인 현실 상황에 대한 화자의 역설적 인식으로, 관조적 자세를 통해 비극적 상황을 초극하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오답 피하기

① ㉠매운 계절(季節)의 채찍에 갈겨 : 공감각적 표현(촉각의 미각화)을 통해 일제 치하의 가혹한 탄압과 시련을 표현한 것이다.

② ㉡서릿발 칼날진 그 위에 서다. : '서릿발 칼날진'은 매서움의 느낌을 강화시켜 주고 '그 위에 서다'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 대한 대결 정신을 형상화하고 있다.

③ ㉢한 발 재겨 디딜 곳조차 없다. : 피할 수도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극한 상황(심리적인 한계)을 제시하고 있다.

The 보기

1. 성격 : 상징적, 의지적, 남성적, 지사적, 참여적

2. 어조 : 의지적, 남성적 어조

3. 구성 :

① 한시(漢詩)의 기, 승, 전, 결의 4단 구성

② 수평적 공간의 이동 (북방→고원→서릿발 칼날진 그 위)

4. 특징 :

① 한시의 '기 - 승 - 전 - 결'의 구조와 유사한 형식임.

② 역설적 표현을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함.

③ 강렬한 상징어와 남성적 어조로 강인한 의지를 표출함.

④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여 긴박감을 더하고 대결 의식을 드러냄.